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로교회 총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추수감사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오후 찬양예배시 아멘찬양대서 감사 찬양



고난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올해가 그랬다. 처지에서 부도와 실직과 감봉과 굶주림의 소식이 들렸다. 원망과 불평으로 수많은 가들집이 깨어지고 자네들은 방황했다.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큰 포부와 기대도 일시에 꺾여버렸다. 홍수와 태풍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 땅을 휩쓸었다. 가스충전소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깊은 패배주의로 물들어 갔다. 도대체 감사의 조건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던가.

그러나 햇빛은 여전히 비추었다. 홍수의 무게를 이기고 일어난 벼이삭들은 예년보다 더 많은 수확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진 지갑을 열어 상치받은 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남몰래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릎은 더 단단해졌다. 이와 함께 복음을 품고 낙도와 오지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로 흩어져 씨를 뿌리고 돌아왔다. 미래의 일꾼들을 위해 수억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도 조성되고 있다. 여전히 예배와 찬양은 계속되고 복음은 쉬임없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다.

'별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감사를 잃어버릴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볼 때에는 별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조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꽃이 떨어 진 고봉의 자리에서 비로소 가을의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았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사를 통해

이미 영원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가득한 가슴과 입술로 회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이 감사의 회개를 위하여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한편, 감사절 행형과 연극, 감사절 찬양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모든 과일을 가지고 가까운 파출소와 교орий, 장애인 시설과 양로원 등을 찾아 예수 사랑의 이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찬양예배에서는 아멘찬양대서 준비한 감사 찬양 '떼대음'이 연주된다.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새 일꾼 인수인계

각 위원회 및 교구, 부서별로 대부분이 오늘 종료 완료

지난 11월 4일 당회 결정에 따라 발표된 99년도 일꾼과 98년도 일꾼의 인수인계 작업이 그동안 신속히 진행되어 오늘 종료로 거의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주일에 이임인수를 하고서 교체된 부서들도 있고, 지난 주중에 총회를 통해 인수인계를 끝낸 부서들도 있다. 기존의 일꾼들은 새 일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새 일꾼들은 새 일꾼들을 격려하고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겠다. 특히 지도부가 일괄 교체된 부서들의 경우에는 행장과 지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힘써 신임 지도부와 협력하여야 하겠다.

한편 신년도 각 교구의 일꾼들과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 명단은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예수 일꾼 세우기

99년도 신임 서리집사·권찰 후보자 교육, 면접

18일(수)에 1, 2차로 나누어 실시

구역장 부지역장 훈련, 주간성경공부는 휴강

각 교구장과 지도교역자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99년도 신임 서리집사·권찰 후보자 교육 및 면접이 오는 18일(수)에 1, 2차로 나누어 실시된다. 지난 수주 동안의 선발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금번 후보자들은 각자가 부담받은 바 소명의식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지를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또한 중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 후보자들이 금번의 교육과 면접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거듭난 예수 일꾼 훈련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이 교육 및 면접사정에 따라 매주 수

요일 9부예배 후에 진행되었던 구역장 부지역장 양성훈련과 주간성경공부, 그리고 수요일 2부예배 후의 남성도 구역장 훈련 등은 모두 휴강하게 된다. 교육 및 면접의 시간과 대상, 장소 등은 아래와 같다.

◆1차

일시: 98년 11월 18일(수) 12:40부터
대상: 여자 신임 서리집사, 권찰 후보자
장소: 갈릴리움

◆2차

일시: 98년 11월 18일(수) 20:10부터
대상: 남자 신임 서리집사 후보자
장소: 베다니홀

복음의 씨 다시 다지기

동기 농어촌전도대 파송

10교구 강원도 인제

10교구는 11월 7일(토)에 지난 여름 농어촌 전도 사역을 위해 다녀왔던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부평교회와 그 일대 마을을 다시 한번 방문했다.

지난 여름에 동행했던 총 17명 중 11명이 대원으로 구성되어 2차로 방문한 금번 전도 행사를 통해 10교구 식구들은 이전에 다른 마을을 전했던 마을을 주민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제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고, 새로 만나게 된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동안 농어촌 전도 사역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대체로 단회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따라서 정착 복음을 들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 일수였다. 그리고 지도 교회의 역량을 따라가기 어려운 해당 지역 교회가 전도대가 다녀간 후에는 오히려 영적인 공백기를 가져다 주는 등의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방문과 사역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과 교회는 우리 교회와의 지속적인 영적 교류의 기초를 놓게 된 것으로 인해 큰 힘을 얻게 되었고, 전도대원들 자신도 복음 전도와 지속적인 돌봄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제자 방문을 통한 전도 방식은 앞으로 우리 교회 농어촌

전도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유아세례식

3시 갈릴리움에서

합석세례식은 다음 주일에

오늘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는 유아세례식이 거행된다.

금번에 유아세례를 받은 대상자는 총 61명이며, 이로써 올 한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들은 총 206명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다음 주일 찬양예배시에 합석과 세례를 받고 입교와 개종을 하게 되는 성도는 190여명에 이르게 된다.

상근직원 수련회

지난 9-10일 양일에 걸쳐 우리 교회 상근직원 수련회가 있었다. 강원도 충천에서 진행된 금번 수련회를 통해서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특히 교회 행정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제자 다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일 행정위원장인 하대선 장로와 신임 행정위원장 김재명 장로가 함께 참여하였다.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이사야 30:27-33)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날에 우리는 유월절 노래를 부르는 선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선민의 유월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남은 때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책임에 충성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배가 부르지도록 당장에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배를 맞고 아파서 우는 것보다는 배를 맞기 전에 회개하면서 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마음 그릇을 준비하기를 다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그릇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채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신앙의 열매를 지키면서 복받은 만한 마음 그릇을 준비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마침내 심판을 당합니다.

1.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 죄인에게는 형벌의 심판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니라 곧 나타낼 것이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도...” (27절)

이 말씀은 여호와와 심판의 소식이 먼 곳에서부터 희희낙락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도 심판이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먼 데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의 모습을 예고하면서 경고하십니다.

“... 그의 진노가 불꽃처럼 하며 백백한 연기가 일어나도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도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칼이라 모에까지 미치는 화산 같은즉 그가 멸하는 것을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라” (27, 28절)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불꽃듯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유향불이 떨어졌을 때에 집만 단 것이 아니라 산이 타고 바위가 타고 땅의 뿌리가 지 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사릅니다. 불 앞에 전될 것이 없습니다.

둘째, 백백한 연기가 일어나듯이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입술에 분노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라. 바로 살아라” 하며 사람으로 권면하면서 기다리신 때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입술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혀는 창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입 안에서 혀가 한 번 움직이면 맹렬한 지옥불이 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호흡은 창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입니까? 피난을 하던 민중을 잘 알고 도망을 갔더니 아무도 도망할 자도 물이 목에까지 차는 것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목에까지 찼으니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멸하는 키로 까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백성을 멸하는 키로 까부르십니다. 키로 까부르다는 말은 알곡만 남기고 죽죽이는 불에 넣으신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자갈이 불리듯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교만하여서 뒤뚱던 많은 백성의 입에는 자갈을 물리십니다. 즉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던 백성에게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길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2) 선민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때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선민의 즐거움이 어떠합니까? 이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피로움을 참던 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29절)

“유월절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거룩한 절기란 유월절을 지킨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절월 14일 밤은 애굽은 만이들이 죽어 통곡하고 소와 양과 나귀와 돼지의 세 것이 다 죽어서 짐승들이 흠부였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이나 고생하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노예의 지옥살이 끊어져 승리와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룩한 유월절을 처음 지킬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이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에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와

해방의 찬미를 부르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해방을 받던 날 밤에 임으로만 찬미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있는대로 다 내어다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온 세상이 심판의 불로 멸망하겠지만 믿음을 지키며 바로 살려고 애스던 성도들이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임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②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란 승리와 피난처를 뜻합니다. 승리자가 피난처에 있으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2.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1) 하나님의 잠잠한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잠잠한 목소리를 들게 하시며...” (30절)

“잠잠한 목소리”란 구원함을 얻은 백성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목소리이고 심판을 받는 백성에게는 간담이 녹아내리는 공포의 목소리입니다.

(2) 하나님의 진노의 팔로 치십니다.

“...赫赫한 진노로 그 팔의 지침을 보이시도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30절)

하나님이 진노의 팔을 펴시니까 심판이 내 가지로 나타나는 데 반개와 벼락이 치고 또 폭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주박처럼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와같이 내 가지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막막하는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 하겠습니까 우박이 쏟아지는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 막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호와와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임” (31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러 나라를 치실 때에 앗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일시로 드셔서 책역으로 사용하여 징계하셨습

니다. 하나님이 앗수르를 책역 삼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여러 작은 나라들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역 노릇을 하던 앗수르가 교만하여서 ‘하늘 위나라 땅 위에 앗수르를 당할 나라이 없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앗수르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책역에 불과한 줄을 모르고 제 힘으로 이것으로 능히 하나님까지 대적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교만하였습니다. 앗수르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 앗수르를 치시게 되었습니다. 책역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치셨으니 더 무서운 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3) 도배이라는 시형틀로 징벌하십니다.

“대저 도배는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며 여호와와 호흡이 유황처럼 갈아서 이를 사리시리라” (32절)

“도배”이란 사형을 집행하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앗수르를 심판하려고 도배이라는 사형틀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사형틀이 준비된 곳에 불과 많은 나무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유황 개천처럼 흘러 나오면 그 사형틀에 올려 놓은 앗수르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태워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참으시는 동안에 회개하고 매달을 일을 면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참으시는 동안에 내 피로움 억울도 참고 복받은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가 누구입니까? 교만하여 의인을 고패한 사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로 평판한 사람들은 벌 수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날에 유월절 노래를 부르는 선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선민의 유월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남은 앗수르 앞에서 헌신하고 책임에 충성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성곤 목사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27-29)

“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오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무리가 와서 여
지로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셨
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 즈음에 제자
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
이 있는 배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오
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던 군중들도 예
수님과 제자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음을 알고 주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
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발견했습
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
는 이유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꾸짖으
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한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배를 메울 수 있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예수
님을 생명의 양식인 주께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주된 배를 채워 주는 자신 사
업가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떡 대신 세상의 양식을

이 무리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
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설명해 주셨습
니다. “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27절).
주님께서는 일시적인 일에 그들의 시간
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노력
도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의 참
떡,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세상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
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썩어질 음식
의 일보다는 영원한 일을 위해 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연스
럽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28절). 그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도전을 받았
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
유인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
시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의해 먹고 살아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

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
에 대해 좀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것과
가치있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
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는 진정으로 가치있게 살고 싶어하고 하
나님의 일과 관계있는 일을 하고 싶어합
니다. 이러한 질문은 좋은 동기에서 나
온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하
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좋은 가치관
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능을 최
대한 잘 사용하여 복된 인생을 살 수 있
는지 진정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성찰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아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곧 “믿으라”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나의 재능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
각각은 이러한 가치있는 일을 위해서 늘
준비해왔고 노력해왔습니다. 성악가들
은 노래합니다. 성악가들은 아름다운
발성으로 멋진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서 이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습니
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와 명예를?

그러면 이와같이 자기 인생을 준비하
는 자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부들의
중심에는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명예
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
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
력의 결과로 행복하고 풍요하고 명예를
과 권위있는 하나님의 일이나 기업을
기대합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을 영화롭게하기 위한 열심이 있는 것입
니다. 성악가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
을 법이 기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
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도구로 사
용될 때 부와 명예와 관계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
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목표입
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재물과 명예
와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
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
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들은 재물과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대
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사고방식에 함정 이 있습니다. 행복
에 대한 우리들의 가치관은 매일 지루
을 겪는 긴장과 많은 돈, 그리고 지극한
효성과 이웃 사랑, 좋은 가정과 성취 생
활을 얻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
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실제
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
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의를
향한 영혼의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하
나님께 용납되어지며 죄사함을 받는 일
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
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집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
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
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이 말하는
가장 고귀한 원리이며 행함의 기초입니
다.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의 신념은 스
스로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
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생
각하고 행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믿
음과 의의 관계를 피력했습니다. 바울
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강조점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행위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에서 진행되는 것
이고 행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
다. 믿음은 동기가 되고 행위는 결과입니
다.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믿음은 바른 행위를 위한 내면의
진실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불가
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말씀

충만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
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
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진정 가치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질
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하
고도 궁극적인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
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29절). “아들
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러 있느니라”(요 3:36) ■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의 질문에 깊고
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부와 행복과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는 질문에 비추
어보면, 주님의 대답은 모순처럼 보일
니다. 지극히 피상적이고 현세적인 대
답을 기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심원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대답하
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29
절). 바로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다. 아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곧 “믿으라”는 말로 대답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상을 살면서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
고 절대적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을 때 줄 수
있는 모든 충고를 생각해봅시다. “공
부 열심히 하세요!” “저축하세요!” 등등
우리는 자שה해 그들의 책임과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실망해 줄 것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대답
대신에 그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선교

‘고내골’에서 놀던 꼬마가 이제 복음 듣고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준비 -

박 경 회(평신도선교사)

여기까지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십여대 남짓한 가구가 모여 살았던 외딴 마을. 대개가 그렇듯 사바니즘, 무속신앙, 불교 등이 생활화된 곳. 그곳 ‘고내골’에서 어머니는 결혼생활을 시작하셨고, 자녀를 두시다가 내가 태어나기 바로 전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먼 소재지인 임고면으로 살림을 나셨다. 임고에는 면사무소도, 초등학교도, 5일마다 장이 서던 장터도, 그리고 교회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 집앞도 지나나가지 않았던 본’이었다. 대수술 등으로 몸이 약해졌고 매일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시며 염세주의와 우울증에 빠지셨던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무렵, 삶을 향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스스로 교회를 찾으셨다. 천정에 다니러 가셨다가 이웃에게 전도를 받으셨던 것 같다. 그때부터 나의 교회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마한 교회엔 전도사님 내외가 계셨다. 햇살이 비치던 마루바닥에 웅크리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 주일예배도, 수요일예배도 드렸다. 그때 전도사님이 들려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내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고, 학창시절을 거쳐 청년기에 이르렀다.

내게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고백과 구원의 확신은 20대에서야 확립되었다. ‘오직 위인은 믿음으로 믿음이야 살리라.’ 신한 행나리 종교적 열심이 결코 구원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프리카라는 단어만 보아도 내 가슴은 그 민족에 대한 복음화와 연민과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변함없이 아프리카를 위해 또한 나를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것을 배우게 되었고 죄로 인해 돌아올 가치도 없는 인간들을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에 십자가까지 지셨고 부활하시어 구세주 주신 주님의 사랑.

그를 그리니 지금부터 10년도 전이었다. 나는 교인이 20여명 안팎이었던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권의 선교 관련 자료를 읽게 되었다. 그 책이 어떻게 내 손에 쥐어졌는지는 지금도 기억

할 수 없다. 거기엔 케냐에서 온 한 유학생이 쓴 글이 적혀 있었다. ‘나의 부족에게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곳에 기독교가 전파될길 원합니다.’ 그 부분을 읽은 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민족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 주셨다. 그것은 마치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과 같이 다가왔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프리카라는 단어만 보아도 내 가슴은 그 민족에 대한 복음화와 연민과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리고 변함없이 아프리카를 위해 또한 나를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내게 왜 그국의 편안함과 안전을 떠나 타문화권 선교를 추구하려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명하셨기 때문이며 다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가능한 모든 곳에 나누지 않으면 안될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 박경희 선교사는 우리 교회 창건 2부 소속이며 지난 10월 30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유치원(만2세) 사역과 미전도종족정탐사역, 현지인 전도사역 등을 협력하며 금번 사역기간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준비와 정으로 삼고자 한다. 박경희 선교사는 총회 가송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로 후원하기로 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 1년을 돌아보며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자매가 헛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듬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4-17)

구제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구제는 정기, 비정기 특별, 비정기 전도구제로 분류된다. 정기구제는 교구장과 교역자가 추천한 후 봉사위원회 위원들의 실사를 통해 확정된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구제는 구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구장과 교역자의 청원을 통해 수시로 지급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되도록 쌀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구제하도록 하여 구제 품이 전담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통한 복음전파와 실천의 도를 하였다. 이에 따라 헌신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생필품구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 동안 봉사위원회는 이 구제대상에 외국인 근로자와 예배마루, 사랑방 등 소외계층 및 장애인 부서를 포함시켜 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병원비 등을 감당해 왔다.

긴급사태 넘어서는 이웃 사랑

지난 여름 8월 6일 이후에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호우가 있었다. 이때 교회는 한국기독교 재난구조협의회와 협력하여 위급목사로부터 각 교구 식구

들, 고등·대학·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4백여명이 온 몸으로 복구활동에 뛰어들었다. 특히 8월 13일에는 30여명의 장로들이 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헌신을 보여 주기도 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6천만원의 수해헌금을 하였고, 대내적으로도 성도들 중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 2천여만원의 특별구제헌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봉사위원의 산하에 비상재해구조봉사대를 상설기구로 두어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당회장의 명에 의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사랑은 성도들의 애정사를 돌아보는 경조부의 활동, 정기적으로 교회주변 대청소를 통해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미화부의 봉사, 그리고 매주 수천대의 차량을 일사분란하게 주차시키는 차량부의 헌신적인 점검 등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일들은 봉사위원회만이 감당하는 기능적인 사역이 아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도리와 믿음의 증거들이다. 따라서 충현의 온 성도들이 이웃 사랑의 뜨거운 불씨들이 되어서 교회와 이웃에 십자가 사랑의 불을 던지는 통로들로 계속 세워져야 할 것이다.



충현 어린이공원 11월 중으로 완공될 충현 어린이공원.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이 공원 두 곳이 완공되고 나면 지역 어린이들의 휴식 공간으로 적절히 사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곳은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겸할 ‘공헌 전도’의 새 현장으로 자리잡힐 전망이다. 물론 따뜻한 계절에는 분반방문 장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정안주회장 ●제2교육관 옆

우리들의 웃 문화에 대하여

진짜 웃은
내 마음
예수님으로 웃입는 것

이 노 아(중등2부)

웃 의 용도는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하게 변해왔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입기 시작한 웃은 처음에는 단순히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개성과 멋을 표출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람은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실로 웃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원래 웃이란 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목적밖에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것이다. 성경 말씀도 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많은 잘못된 웃차림의 풍요 속에서 웃은 점점 위상화 되어 가다시피 하고 있다.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결국 '웃

풍요로워진 웃 문화 속에
웃이 위상화되는 것 경계해야

내면보다 외식적인 것에
신경쓰는 잘못 깨달아야

답지 못한 웃차림이다'라는 견해와 '개성 표현이다'라는 견해의 대립이다. 사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벨트와 험잡바지를 보고 얼얼한 한 번 안 켜그리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험잡바지와 외국의 유명 상표의 옷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성을 보다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나는 어느 한 의견만을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내면에 있는 것보다 외식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것을 보여 주기보다는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멋과 개성들만 고집하다보니 잘못된 웃차림 풍토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된다. 남에게 무조건 잘 보이기 위해 웃차림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 내 마음속 웃차림을 정돈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웃이란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마음의 웃차림을 정돈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웃입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

회복의 하나님

박 장 호(중등3부)

주님!
나를 죄악과 율법의 잡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벌로 거듭나게 하시어
이 황무지를 비추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불러진 그대를
영광이 주의 영광을 불 그대를
우리의 임으로 찬송케 하시옵소서

감사의 노래

박 범 유(중등1부)

칭 감사
감사드리자
종말종말 지저귀는 산새
활활 나는 오색무늬 나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백아
감사드리자
파루파루 돌는 새악
방구 웃는 향긋한 꽃
주신 만유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종말종말 지저귀는 산새
활활 나는 오색무늬 나비
파루파루 돌는 새악
방구웃는 향긋한 꽃
주신 만유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처음 주신 사람

손 윤 아(중등2부)

첫었던 어린 시절엔
짐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지켜보심이
내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담담하게만 발아온 사랑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로
나를 지켜 주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주셨던
이유없이 주셨던
그 사랑의 참 뜻을 믿습니다

영어교육부 어린이반

세계 선교의 꿈을 키우는
꼬마 선교사들

김 석 영(집사, 영어교육부 교사)



"God is so good(좋은 하나님),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유치부부터 6학년 언니, 오빠까지 선생님과 모두 한 마음으로 읊조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우리 작은 꼬마 선교사들의 주일공부는 복지관 2층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준비기도 후에 10시 30분부터 찬양, 11시부터 각 학년별로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한 어린이들, 선교의 소명을 갖고 영어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어린이들 60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12명의 선생님들의 봉사와 기도 주 안에서 날날로 지혜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개설된 영어에 배와 영어교육부에는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 성인반이 있고 현재 초등부는 김천혜 장로님과 장영옥 관사님, 이부성 집사님이 지도해 주시고 있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Michael Jung, Alice Lavina, Dr. O'connell, Marilyn Dowell, David Yorson, Mrs. Lee Jee Hi 등 여러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96, 97년에는 성탄절 상극(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민아의 성탄절 Jesus is my all, Min's Christmas)과 찬양으로 예수님께 경배했고 매년 영어 성경암송대회, 퀴즈대회, 찬양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하시던 Dr. Braklie, 가나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성도 등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현지소식과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는 천사로 봉헌한 데이빗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편지를 모두 모아, 어린이들이 한국을 그리보게 했고, 유혜는 김병수 전도사님(Benjamin)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각종 과일에 감사제목을 아름답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우리 꼬마 선교사들이 무럭무럭 주 안에서 성장하여 천국일꾼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어로 찬양과 성경공부하기를 원하는 어린이 여러분! 영어교육부의 문을 두드리세요.



감사의 계절

추수 때에 아름다운 결산보고서를 하나님께

강 모 용(장로, 6교구)

난 대없는 물난리로 인해서, 또한 뜻하지 않은 태풍 때문에 풍성하고 만족할 만한 소출을 얻지는 못했지만 벼 수매현장에서 돈을 받아 권 농부들의 보람있는 얼굴들이 싯본 한 천을 차지하는 가을입니다. 씨 뿌리는 수고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 날 없이 힘든 일을 하며 지냈던 무덤고 지리한 시간이었겠지만 수고한 만큼 정직하게 나타낸 결산들은 농부들에게 큰 기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실감나는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영역에도 이 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심고, 기도와 찬양을 심으며 살았는가에 따라 그 결과와 눈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충절주 나태한 자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그 결과는 부끄러운 보고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삶을 살았다면 아름다운 결산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심음과 거둔의 자연법칙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추수의 계절에 충현의 성도들 모두가 영육간에 아름다운 결산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 봅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얻을 밭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창 25:13) 주님께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살았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결산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의 기도

수보드(국내외국인선교부, 소리양가인)

하나님, 지금 드리는 감사기도를 들어주세요.

지난 날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돈벌러 왔던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좋은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가 없던 저와 친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고통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선교부의 모든 선생님들과 저의 친구들,

소리양가의 국민들과 부모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탐방

예수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우리 구역

1교구 충현7구역



1교구 충현7구역은 교회 제2교육관 건물 바로 앞쪽에 위치한 역삼동 669번지에 사는 식구들로 구성된 구역이다. 교회가 이곳 역삼동으로 이전해 온 후 구역이 몇번 나뉘어지고 합쳐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충현7구역의 현재 모습은 97년도부터 이루어졌다.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역식구들 모두가 성령충만함을 맛보아왔다. 사랑의 교제도 넉넉하다. 한 번은 신명자 집사님택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신 집사님이 급한 일로 잠시 나가셔야 했을 때, 집주인도 없이 남은 사람들끼리 밥을 차려 먹는 중 서로의 이색한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던 일도 있다.

구역장 서혜경 집사님은 구역식구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참 많다. 말씀을 원히 태도로 계시면서 항상 보충성명을 해 주시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 결석이 없으신 김화선 권사님,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깨쳐주시고,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 하시고 대하노트 여러 권에 성경 말씀을 주제별로 다 기록해 두신 유경란 할머니, 충현드레스를 정경화 집사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하시고 구역을 지켜나가는 이숙득, 신명자 집사님 부부, 남편 때문에 대견까지 오가 시면서도 구역예배에 힘쓰시고 자녀를

한 블록 안에 함께 살면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위해 친근히 기도하고 있는 충현7구역 식구들의 희망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구역이 배가되는 것과 온 식구들이 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잘 키우시는 정부순 집사님, 믿음의 날로 쭉쭉 자라면서 늘 대접하기를 기뻐하시는 조만예자매님, 사랑이 넘치시는

이재훈 권찬님, 처음 믿는 모습이 예뻐기만 한 구역의 막내 정경남 성도, 그밖에 김홍식 성도 부부, 김용원 성도 부

부, 역삼커뮤니티의 김길식 성도, 정월순 성도, 고정선 성도, 노인정 할아버지 등 모두 생각만해도 마음이 즐겁다.

구역원들 역시 구역장 자랑에 입을 모은다. 매주일 열심히 연락해 주시고 구역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새벽기가 이사오면 심방하면서 성실히 섬겨 주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구역장 집사님, 연세가 높으신 구역식구들은 서혜경 구역장을 두고 한 마디로 '나무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한 블록 안에 함께 살면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위해 친근히 기도하고 있는 충현7구역 식구들의 희망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구역이 배가되는 것과 온 식구들이 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의 건강과 가족 중 투병중인 식구들의 회복, 가족 중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거듭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구역장 서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이제까지 우리 구역식구들을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구역식구들이 계속 사랑으로 동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구역식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체들 소식

1교구
꼭조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교구식구들

교구모임시간이면 교육관 4층이 약간 높지만 나이 많으신 신사남들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즐거이 올라오신다. 교구식구들은 일주일간의 생활을 나누면서 말씀의 시간 전에 찬양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 화음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간의 겸손의 마음을 나누었다. 꼭조 있는 기도의 찬양 속에 우리의 순수함을 찾고 순수함 속에 주님의 향기를 맡고 싶은 교구식구들은 누구든지 주일 오후 2시 교육관 407호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임동태 통신원)

12교구
성령 충만한 영성훈련

11월 3일 충현기도원에서 금년도 하반기 영성훈련을 가졌다. 대부분의 교구식구들이 교양식 일산동면 거리에 살기 때문에 4대의 차량이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기도원으로 수송하였으나 교통이 복잡하고 멀어서 기도원까지 가는 데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150명이 넘는 교구일꾼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든 기도원에서 청명한 하늘을 쳐다보는 성도들의 얼굴도 성령이 충만하여 단풍잎처럼 상기되었다. 경건의 시간에는 전경훈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12-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2대 표어 중 하나인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온귀히 되는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셨다. 특강 시간에는 정현민 목사님께서 21세기 교회상으로 우리 교회의 5대 목표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세밀하게 강조하셨다.

특히 '신령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감명깊게 강조하여 큰 깨달음을 주셨다.

개인 기도시간에는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환자들과 개인의 문제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물을 하고 돌아왔다. (백철구 통신원)

15교구
참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들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슬퍼하며 안타까워한다. 올해 동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많은 가정이 생기고 또 자연재해로, 인제로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한다.

인생들의 마음과는 달리 가을 산들은 색색으로 곱게 물들었고 가을견이를 끝낸 노란 들은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단풍의 고운 색은 일조광의 부족으로 탄소산화작용이 원활치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낙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 아름다운을 절정에 이른다.

우리 인생들도 부족한 것으로 인해 오려져 하루 안에서 다 아파다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계절에 교구모임에서 참 믿음을 주옵소서, 12월 목요일 교구 영성훈련이 영적 재부장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숙정 통신원)

영아부
아쉬움을 안고 졸업사진 찍었어요

엄마뚱에 재근재근 잠만 자던 아기들이 용알이를 하던 아기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분당 앞에서 졸업사진을 찍었다. 그 어느날보다 예쁜 모습들이었다. 그동안 시로가 정성스럽게 섬김기에 보람이 컸지만 섬세함과 아쉬움이 자꾸 스친다. 앞으로 한달 만, 주일로만 따지면 7일이라는 긴지 않은 시간만이 남아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아쉬움 없이 예수님

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추수의 계절, 따스한 태양과 서늘한 바람과 단비를 주셔서 탐스런 과일과 곡식을 풍성히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는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을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희망맹아원'이라는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묶어 전하려 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30일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형, 동생과 늘 부르며 은혜받던 찬양을 여러 선생님들과 친구를 앞에서 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행사를 갖고도 합니다.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거예요. (이은혜 통신원)

군전도회 현역 장병 주소지 파악

군전도회에서는 연발연시를 앞두고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탄선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가족 중 현재 군입대하여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정확한 주소를 11월 22일(다음 주일)까지 아래와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신정차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입대일	관계		
계급	교적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	전화번호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이종택(집사, 제2교구)

"이와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마 20:16)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4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16세-17세의 어린 시절에 떠난 연남이란 친구와 시골교회를 다녔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같은 반이고, 바로 밑에 살던 해수라는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그 친구를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리면서 찬송가 411장의 곡조에 "예수 사랑 할라로 예배당에 갔더니 내 신 훔쳐 갈라고 눈 감아라 하더라"라는 놀림감의 노래를 했었다.

그 친구가 20여년 전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비행기 안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살아날 기망

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 교회의 목사님의 기도로 3일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식이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었다. 그 친구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주인과 자녀들은 물론이고 처가에도 복음을 증거하여 모두 구원을 받게 되고, 불교신자이던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 시골에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현재 그 친구는 모 교회에서 장로로서 제정위원장의 직책을 맡는 등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나를 깨닫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만평

하나님의

이름?!

배성준(대학부)



● 알림

-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I, II, III, IV, V 부 예배시 추수감사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 2.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 22일(토요일) 완강예배시 본당에서 있습니다(유아세례까지: 오늘 15:00, 갈릴리움).
- 3. 오순절주일후기도회 장소 안내 / 유아세례식이 있는 관계로 오늘날 사방부실에서 있습니다.

● 모임

- 1. 참로회오백사십기도회 / 17일(토) 새벽기도, 교육관 109호
- 2. 안수집사회 월오백사십기도회 및 성경공부 / 16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3. 교육위원회 총회 / 오늘 15:30, 당회실
- 4. 전도위원회 총회 / 오늘 15:30, 선교관 405호
- 5. 실업인전도회 총회 / 17일(토) 19:00, 만나홀
- 6. 실업인전도회 목요일기도회 / 18일(토)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 7. 교육훈련원 월례회 / 20일(월) 18:00, 교육관
- 8. 전교회 제2회 월례회 / 18일(수) 1부예배 후, 사방부실

● 남나전도회

- 1. 바. 물 1 총회 / 21일(토) 18:30, 계주부대
- 2. 바. 물 3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 3. 바. 물 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2호
- 4. 바. 물 5 총회 / 17일(토) 19:00, 배대강길(555-0260)
- 5. 바. 물 11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 6. 바. 물 13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0호
- 7. 바. 물 16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임마누엘홀
- 8. 베드로 1 총회 / 21일(토) 19:30, 캄반홀
- 9. 베드로 5 / 28일(토) 19:00, 강종현 집사택
- 10. 베드로 6 총회 / 17일(토) 19:00, 우리강전(404-1919)
- 11. 베드로 8 총회 / 21일(토) 18:30, 금호호텔(0947-791-6364)
- 12. 베드로 10 총회 / 22일(다음주 월) 19:00, 방정무 집사택
- 13. 베드로 11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 14. 베드로 13 총회 / 오늘 12:00, 캄반홀

- 15. 베드로 17 총회 / 21일(토) 18:30, 장선현 집사택 (0342-706-3379)
- 16. 요. 한 5 총회 / 21일(토) 19:00, 막아부실
- 17. 요. 한 6 / 오늘 12:00-13:30, 캄반홀
- 18. 요. 한 7 총회 / 21일(토) 18:30, 영아부실 (이중현 집사, 441-9329)
- 19. 요. 한 13 / 오늘 14:00, 캄반홀
- 20. 한 나 7 / 18일(수) 1부예배 후, 만나홀
- 21. 한 나 13 / 오늘 교구모임 후, 사방부실
- 22. 한 나 17 총회 / 18일(수) 1부예배 후, 만나홀
- 23. 예스더 1 / 29일(월요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24. 예스더 2 / 오늘 교구모임 후, 야안홀
- 25. 예스더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 26. 예스더 10 / 17일(토) 11:30, 문경희 권사택 (0351-451-0774)
- 27. 예스더 11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매추라기홀
- 28. 예스더 13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막아부실
- 29. 예스더 15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배다나홀
- 30. 예스더 16 총회 / 오늘 교구모임 후, 임마누엘홀
- 31. 루디아 2 / 16일(월) 11:00, 캄반홀
- 32. 루디아 4 / 19일(목) 11:00, 영아부실
- 33. 루디아 5 총회 / 21일(토) 13:00, 캄반홀
- 34. 루디아 6 / 17일(토) 11:00, 호수부대
- 35. 루디아 7 / 17일(토) 11:00, 진미부실
- 36. 루디아 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4호
- 37. 루디아 13 / 17일(토) 11:00, 손순비 집사택(605-7741)
- 38. 루디아 14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116호
- 39. 루디아 17 총회 / 17일(토) 11:00, 김순자 집사택 (호주촌 현대, 110-201)
- 40. 미리아 2 / 17일(토) 10:30, 이영숙 집사택(3442-5966)
- 41. 미리아 5 / 17일(토) 10:30, 노아식당
- 42. 미리아 6 / 17일(토) 11:00, 정진숙 성도택(412-6594)
- 43. 미리아 7 / 17일(토) 10:30, 유아부실
- 44. 미리아 11 / 오늘 12:10, 유아부실

- 45. 미리아 13 / 오늘 13:00에 후, 캄반홀

● 결혼

- 1. 윤명훈(목) / 목사, 고인자 사모의 아들(과 제8교구) / 17일(토) 12:30 갈릴리움
- 2. 김삼현(목) / 장대우 안수집사, 최상진 권사의 딸, 제2교구와 고수정영(교장) 씨, 서재하 씨의 딸, 제19교구 / 19일(목) 12:00 갈릴리움
- 3. 이종국(목) / 이원부 씨, 김준자 성도의 아들, 제16교구와 최요은(목) 성도 씨, 신하인 씨의 딸, 제19교구 / 21일(토) 13:00 갈릴리움
- 4. 이문준(목) / 이문준 안수집사, 강영숙 집사의 아들, 제19교구와 이영복(목) / 이문준 집사, 김순자 목사의 딸 / 21일(토) 14:00 복자관
- 5. 최재필(목) / 김진희 집사의 아들, 제8교구와 최희정(목) / 최정진 씨의 딸 / 21일(토) 15:00 배대강석당

● 별세

- 1. 심달은 성도(장영희 집사 모친, 유정영 집사 장모, 제6교구 송파2구역) / 7일 별세, 9일 장례
- 2. 유순이 성도(조한장 집사 모친, 최화자 권사 시모, 제12교구 배마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총회 선교대회 11월 17일 우리 교회에서

총회 선교부는 17-18일 양일간 세계 선교의 참된총회 기념 선교대회를 열기로 하고 17일은 '선교사의 날' (총회교회)로, 18일은 '교단 선교사의 날' (양성교회)로 기념기로 했다. 한편 이준교 선교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 귀국할 예정이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736	김순자	1	예스더		1746	김우영	19	청년1부		1756	김시화	11	고동부	
1737	박영순	1	한나	김영준(1)	1747	강민석	19	청년1부	송정목(9)	1757	김석희	19	고동부	
1738	김구준	2	청년1부		1748	박길원	19	청년1부	함형석(16)	1758	이호선	19	고동부	
1739	김영	2	청년2부	이승재(3)	1749	윤현화	19	청년1부		1759	임태준	4	요한	
1740	정우주	4	루디아		1750	김희근	19	청년1부		1760	김민수	16	청년부	
1741	정혜숙	19	청년2부	이명자(2)	1751	장수민	19	청년1부		1761	김남근	16	장년부	
1742	최영수	16	예스더	한정숙(16)	1752	조남석	19	청년1부		1762	최영수	16	예스더	
1743	김성환	19	대학부		1753	임미영	19	청년2부		1763	이종현	16	청년부	
1744	박현성	19	대학부		1754	조준우	19	고동부		1764	이창숙	17	소망부	
1745	김현준	19	청년1부		1755	박동수	11	바울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물음

주님만 바라봅시다

김 정 순(집사, 13교구, 고동부 교사)

게단 오르기가 힘들다. 언제부터인가 숨이 차오르고 걷기가 힘들어서 지 하할 게단이 나오면 걸터만 댈다. 매일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다가 큰 큰 해를 받았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나의 삶에 주님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 주셨다. 우리의 고동부 수험생들이여! 수능

시험을 이제 삼일 앞두고서 열려와 조조, 긴장, 힘든 순간건널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배성들이 불순종하여 불행에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강대 위에 달린 싹을 뿌려다보이는 자마다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임시를 앞두고 있는 고동부 수험생들이여!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을 믿고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라.



11월 22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 · 3부예배

오보에 이지민 (임마누엘오케스트라)

◆ 찬양곡목

- 돌아와 돌아와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내 영혼 평안해

◆ 4부예배

소프라노 박현주 (배현왕대 솔로리스트)

◆ 찬양곡목

- 진리와 생명의 되신
- 십자가로 가거라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조준한 목사

총회 중보의 창

① 장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원로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99년도에 위한 인사 개편을 통해 총회교의 5대 목회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일해 맺어갈 수 있도록 새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하라 하소서.

③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단기 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 맡겨진 믿음을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해 하고, 총회의 기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근거하고 그 복음을 대항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하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되고 고동부교회와 방학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총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명의 종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 중에 간직해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⑦ 99년도 성일 시리즈, 권할 후보자들이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여 주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하소서.

⑧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하소서.

⑨ 학습 및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⑩ 17일, 18일 양일간 일출 총회 선교대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소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성관
- 원로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현, 김희수, 이종대, 박정현, 김동석, 김현주, 전현준, 김재철, 이송수, 정갑진, 정현민, 조준한, 조영수, 김동하, 차명준, 정현성, 김민석, 권현원, 서정진, 이송화
- 원로목사: 윤영대, 박영순,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필, 김영대
- 원로목사: 조준한
- 원로목사: 조준한, 전현준, 장영자, 임태주, 김성자, 배옥인, 최희배,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하, 김성관, 김복순, 최영관, 김현성
- 교정목사: 박정현
- 교육목사: 박정현, 전현준, 장영자, 임태주, 김성자, 배옥인, 최희배,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하, 김성관, 김복순, 최영관, 김현성
- 원로목사: 윤영대, 박영순,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필, 김영대
- 원로목사: 조준한
- 원로목사: 조준한, 전현준, 장영자, 임태주, 김성자, 배옥인, 최희배,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하, 김성관, 김복순, 최영관, 김현성
- 원로목사: 윤영대, 박영순,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필, 김영대
- 원로목사: 조준한
- 원로목사: 조준한, 전현준, 장영자, 임태주, 김성자, 배옥인, 최희배,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을, 한영준, 박종하, 김성관, 김복순, 최영관, 김현성